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 속도

여주시·전남도 230억 출자...민간투자 마중물

정기명 시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성공 모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된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이 지자체 출자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른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와 전남도는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BS한양, GS에너지 등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참여한

기업과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출자금 납입으로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

총사업비 1조4362억원 규모의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사업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정부자금(펀드) 20%,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20%,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60%로 구성된다.

여수시가 100억원, 전남도는 130억원을 특수목적법인(SPC)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에 직접 출자했으며, 이는 지자체가 행정 지원을 넘어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관련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민간(PF 대주단)과 여러 차례 사전 컨설팅을 가졌으며,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자심사 면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여수시의회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을 거쳐 행정절차 이행을 뒷받침했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넘어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인구 유입, 지방세 수입 확대 등 동반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성공적인 지자체 모델로 자리매김 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t의 액화천연가스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공급하게 되며, 공급가격은 기존 대비 10% 이상 저렴해 에너지 원가 절감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 기여와 1만3000여명 고용, 2조 8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여수시는 20년간 매년 29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하게 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LOCAL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BS삼총사, 보성다향제 홍보

이모티콘 3만5000명 배포

보성군의 SNS 스타인 ‘BS삼총사’(녹차문·꼬막문·키위문)가 올해도 돌아왔다.

보성군은 14일

오후 2시 카카오톡 ‘보성군청’ 채널을 통해 ‘BS삼총사’ 이모티콘 16종을 선착순 3만5000명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모티콘은 제48회 보성다향제를 앞두고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용으로, 보성차밭과 축제 현장을 누비는 BS삼총사의 모습을 익살스럽고 귀엽게 표현한 총 16종의 이미지로 구성됐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보성군청’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배포 시간에 맞춰 다운로드 메시지가 자동 발송된다. 보성다향제 관련 실시간 공연 정보, 프로그램 일정 등 다양한 알림 서비스에 함께 제공돼 유용함이 더해진다.

사용자는 일상 속 메시지에서 이모티콘을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보성다향제를 알리는 데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임태형 기자 ltmh66@

나주, ‘농기계 사고 알림’ 도입

봉황면 시범...119에 위치 전달

나주시가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사고 감지 알림 시스템을 봉황면에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봉황면 축석리에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38대에 단말기를 부착하고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해 농기계 사고 감지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단말기가 부착된 농기계의 종류, 위치, 차량 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노출해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여기에 영농철에 빈번한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 보호자와 119 응급지원센터(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사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윤병태 시장은 “영농철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영농 안전망을 봉황면 축석리에 시범 구축했다”며 “시범사업 성과로 농기계 사용이 많은 읍면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 유자라면’ 서울 시민과 만난다

18~20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식 행사

‘고흥 유자라면’이 서울 시민과 다시 만난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흥유자 축제에서 첫 선을 보인 많은 관광객에게 인기를 누렸던 ‘고흥 유자라면 시식 행사’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고흥군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너른뜰관에서 개최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로,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유자라면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

당초 이 행사는 지난해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사 시기와 장소가 예민한 사회 분위기와 겹치며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연기됐다.



이번 시식 행사는 푸드트럭을 통해 축제에서 조리한 유자라면을 제공하며, 고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의 색다른 활용을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흥 특산물 홍보 부스를 함께 운영해 고흥 농수산물과 관광자원의 매력을 전할 계획이다.

고흥 유자라면은 이우석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레시피로, 닭고기 육수에 고흥산 유자의 상큼한 풍미가 더해진 새로운 맛이 특징이다.

지난해 고흥유자축제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서울 시민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반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장흥,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8종 추가 선정

편백 독서대·잡곡세트·힐링 테라피 할인권 등

장흥군은 최근 ‘2025년 제1회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4개 공급업체 8개 신규 상품을 답례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업체명)은 편백 독서대(장흥지역자활센터 친환경공방), 이로우미 스페셜세트·데일리 패드센트, 힐링 테라피 이용할인권(장흥군신활력을러스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편백 비누·치약세트, 편백 워터, 편백 나무도마(옹이), 잡곡세트(옹두농협 미국종합처리장)이다.

이와 함께 답례품 재기부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군은 답례품 선정과 함께 공급업체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증량’, ‘담’, ‘기획상품 구성’ 등 기부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와 감독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답례품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정영수 기자



순천시와 싱가포르 LNC, 경덕농수산물 관계자들이 최근 싱가포르 LNC 회사에서 순천시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 농특산물, 동남아 수출 시장 개척

싱가포르·베트남 등 방문해 수출협약 체결

순천시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동남아 수출 시장 교두보 마련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싱가포르, 베트남을 방문해 ‘Made in 순천’ 농특산물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는 (주)경덕농수산물, 순천농

협, 순천시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식품박람회(FHA)를 참관해 동남아 식품과 음료 시장의 신규 트렌드를 파악하고 현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유통매장이며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에스엘 푸드(SL FOODS Pte Ltd)와 엘엔씨 유통체인

(LNC Pte Ltd)과 수출 상담회를 열고, ‘Made in 순천’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동남아 수출 신규 시장인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산호유통과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을 협의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특히 순천시는 지난해 베트남에 순천 쌀 대표 브랜드 ‘나누우리’를 첫 수출했으며, 씬에 이어 올해도 순천시 농특산물의 수출길을 확대할 계획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함평, 나비대축제 안전사고 예방 집중

경찰·소방 등과 상황대처 논의

함평군이 오는 25일 개막하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축제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2회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상인 함평군수가 주재했으며 함평경찰서, 함평소방서, 한 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등 유관 기관 관

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함평축제관광재단의 축제 세부 계획 보고와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행사 안전관리 조직 구성, 다중 운집 시 대응 방안, 비상 상황 대처 계획 등 축제 전반에 걸친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